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1, No. 1. February, 2024. 128~137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4.41.1.128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김은아[1] · 하윤주[2]†

[1]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4년 1월 22일 접수: 2024년 2월 29일 수정: 2024년 2월 29일 채택)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f Nursing Students

Eun-A Kim[1] · Yoon-Ju Ha[2]†

[1]*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Honam University*
(Received January 22, 2024; Revised February 29, 2024; Accepted February 29, 202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대학교 3곳의 간호대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 및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사이에서 진로적응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Z=6.66, p<.001),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β=.24, p<.001),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β=.49, p<.001),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관여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7%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적응력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과 더불어 진로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개인의 강점을 인지할 수 있는 지도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학생,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84 nursing students in three Universities in G City, J Province. Data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lso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aron and Kenny method and Sobel test. The career adaptability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strengths knowledge and the occupational engagement(Z=6.66, p<.001). The positive the strengths knowledge(β=.24, p<.001), the higher the career adaptability(β=.49, p<.001), the higher the occupational engagement level, and the explanatory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j7@honam.ac.kr)

power to explain occupational engagement was 47%.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areer engagement of nursing students, specific behavioral strategies for fostering career adaptability as well as cognitive guidance strategies that enable individuals to recognize their strengths in career-related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needed.

Keywords : Nursing, Students, Strengths Knowledge, Career Adaptability, Occupational Engagemen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폭발적인 고령인구의 증가 및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간호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 간호사의 인력수준은 OECD 평균 인구 1천명 당 9.8명에 비해 8.8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1]. 이와 같은 인력수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하였고, 그 결과 전국의 간호학과 취업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와 같이 간호사 수와 공급이 유지된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과잉 상태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2]. 따라서 학과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부생활을 마친 후 성공적인 직업활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마련 및 지도가 필요하다[3].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질적연구에서[4], 간호대학생 대다수가 임상간호사로의 진로를 선택하며, 취업을 결정할 시점에서야 비로소 기관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 간호사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병원 이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학과에 입학 후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나 탐색적인 행동 없이 막연하게 국내 종합병원으로 취업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이는 입사 후 간호업무에 대한 낮은 만족도 및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져 의료인력 양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학부과정 동안 간호의 정체성, 본인 적성과의 일치성 및 학과 졸업 후 가능한 업무의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로관여행동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로관여행동은 직업관련 선택사항들을 확장시키고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동으로[6], 진로관여행동을 통하여 개인은 직업 정체성이 발달되고, 이와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7]. 그 결과 진로관여행동은 자신을 깊게 인식 하게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진로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8]. 선행 연구에서 진로관여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낙관성[9], 소명의식[10], 성장마인드셋[11], 강점인식[12]등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개인 내적 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변수들 중 개인의 긍정적 자질이라 할 수 있는 강점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강점인식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강점을 자각 및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13], 삶의 만족이나 안녕감 등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14-17]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동하는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도움보다는 개인의 내적 힘을 증진시켜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14], 강점인식이라는 개인의 내적 역량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강점인식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긍정적으로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돕는다[18]. 따라서 강점인식은 진로적응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진로관여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겠다. 진로적응성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인의 생각 및 행

동을 유연하고 적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19], 성인기 초기에 위치하며, 진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대학생은 보다 다양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이들의 진로발달은 진로적응성의 개념에 부합한다[9]. 즉, 간호학 전공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진로적응성은 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동적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진로적응성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들이 확인되었으나[9,11,20]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영향을 줄 때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관여행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첫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관여행동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위치한 3곳의 간호학과에서 편의추출의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최소 표본 크기는 G power 3.1.9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유의수준 .05기준으로 예측변수를 10개로 하였을때 최소 172명이며, Park[12]의 연구를 근거로 탈락률을 10%로 고려하면 18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학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체 28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응답이 답변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8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강점인식

강점인식 도구는 Govindji와 Linley[13]이 개발하고, Kim과 Lee[21]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이며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부정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Govindji와 Linley[1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α=.89이었고, Kim과 Lee[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2이었다.

2.2.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 도구는 Maggiori 등[22]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 CAAS-SF)를 Kim과 Ko[23]이 국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진로적응성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2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이 높아 진로문제와 관련한 대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기심, 자신감, 관심 및 통제의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Maggiori 등[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2.2.3. 진로관여행동

진로관여행동은 Cox[6]가 개발한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OES-S)를 Jung[2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자기이해 및 진로를 찾아가려는 노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Cox[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85, Jung[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3.1.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본 연구자가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학과의 절차에 따라 학과장의 승인 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 설문지 내용,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 후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철회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 등을 연구동의서에 포함하였고, 설문 후에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관여행동의 차이비교는 t-test와 ANOVA,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25]의 3단계 절차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두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26]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정도

대상자의 강점인식은 7점 기준에 평균 5.03±1.04점, 진로적응성은 5점 기준에 평균 3.98±.58점, 진로관여행동은 5점 기준에 3.43±.64점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강점인식은 7점 기준에 평균 5.03점이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Kim[37]의 연구에서 4.66점, Rho[38]의 연구에서 4.68점보다 높은 점수로써 본 연구대상자는 스스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적응성은 5점 기준에 평균 3.98점으로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Kim[29]의 연구의 3.71점, Park[30]의 연구의 4.02점과 유사하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우정의 4.44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진로관여행동은 5점 기준에 3.43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11]의 연구에서 3.84점 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 비해서 타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과 취업분야 간 일치도가 낮고 다양하여 진로환경 변화에 대처 및 직업선택과 관련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유추되나, 전공에 따른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의 수준 차에 대한 추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관여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진로관여행동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적 및 학교생활 만족도이었으며, 성별, 연령, 학년, 경제상태 및 거주형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위권 성적이 중위권보다, 중위권 성적이 하위권보다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았다($F=7.27$, $p<.001$).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군이 중간이나 불만족인 군에 비해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았다($F=13.38$, $p<.001$) 〈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84)

Variables	Range	Mean±SD
Strengths knowledge	1~7	5.03±1.04
Career adaptability	1~5	3.98±.58
Occupational engagement	1~5	3.43±.64

른 진로관여행동에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31]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추후 학업 저성취자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진로지도 전략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관여행동은 강점인식(r=.55, p<.001) 및 진로적응성(r=.64,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강점인식은 진로적응성(r=.61, p<.001)과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3〉.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12,17] 및 진로준비행동[18]이 정적관계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9,11,17]이 정적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14-17]이 정적관계를 보인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강점인식 수준이 높고, 진로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능력이 높으면, 일과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된다.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통제한 후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25]의 회귀분석에 근거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동시에 Sobel test[26]도 이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

Table 2. Degree of Career Adap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4)

Variables	Categories	n(%)	Occupational engagement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232(81.7)	3.40±.62	1.41 (.159)
	Female	52(18.3)	3.54±.72	
Age	≤23	240(84.5)	3.43±.64	−.09 (.927)
	≥24	44(15.5)	3.44±.65	
Grade	1st	46(16.2)	3.37±.77	.96 (.413)
	2nd	44(15.5)	3.36±.64	
	3rd	96(33.8)	3.51±.65	
	4th	98(34.5)	3.41±.56	
Academic achievement	High[a]	40(14.1)	3.59±.59	7.27 (.001) a>b>c
	Medium[b]	206(72.5)	3.46±.61	
	Low[c]	38(13.4)	3.09±.71	
Economic state	High	15(5.3)	3.63±.58	2.97 (.053)
	Medium	248(87.3)	3.44±.62	
	Low	21(7.4)	3.14±.81	
Residence type	With family	173(60.9)	3.46±.65	.89 (.377)
	Apart from family	111(39.1)	3.39±.62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a]	86(30.3)	3.71±.57	13.38 (<.001) a>b,c
	Moderate[b]	188(66.2)	3.31±.60	
	Dissatisfaction[c]	10(3.5)	3.19±1.08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84)

Variables	Strengths knowledge r(p)	Career adaptability r(p)	Occupational engagement r(p)
Strengths knowledge	1		
Career adaptability	.61(<.001)	1	
Occupational engagement	.55(<.001)	.64(<.00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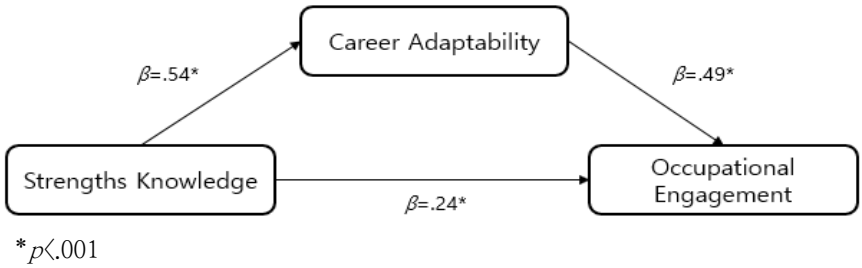
Table 4.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of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N=284)

	Variables	*B*	*SE*	*β*	t(*p*)	R^2	Adj.R^2	F(*p*)
Step 1	Strengths knowledge →Career adaptability	.30	.03	.54	10.76 (<.001)	.41	.40	38.39 (<.001)
Step 2	Strengths knowledge →Occupational engagement	.31	.03	.50	9.39 (<.001)	.33	.31	26.90 (<.001)
Step 3	Strengths knowledge →Occupational engagement	.31	.06	.24	4.22 (<.001)	.47	.45	40.28 (<.001)
	Career adaptability →Occupational engagement	.54	.06	.49	8.52 (<.001)			

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선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에서는 .48~.91으로 .10 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2.1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선 문제는 없었다. 더불어 Durbin-Watson 지수는 1.92로, 2.0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상관이 없으며, 정규성 분포를 충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1단계인 매개효과 검증에서, 강점인식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강점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이 높아졌다 (β=.54, p<.001). 진로적응성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41.0%이었다. 다음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때,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도 높아졌다(β=.50, p<.001). 진로관여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33.0%이었다.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강점인식(β=.24, p<.001)과 진로적응성(β=.49, p<.001) 모두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감소하여, 진로적응성은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점인식 점수와(β=.24, p<.001), 진로적응성 점수가(β=.49, p<.001)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관여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47.0%이었다. 또한 Sobel test [26] 검정 결과에서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Z=6.66, p<.001)〈Table 4〉 〈Fig. 1〉.

매개효과를 검증한 1단계에서 강점인식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대학생의 강점인식[15-17] 및 성격강점[14]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영향을 주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몰입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면서, 더욱 주체적이며 확신을 지닌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게 되어[21]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론된다. 개인의 강점인식과정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개인의 잠재된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여, 다양해진 진로환경에서 각 개인에게 적절한 간호 면허 활용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와 능력을 높이는 것



*p<.001

Fig. 1.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of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과의 다양한 비교과과정 내에 그들 스스로가 강점인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강점코칭 전략을 포함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겠다.

2단계에서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점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도 높아졌다. 이는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정적영향을 보였던 연구결과[12]와 일치하며, 자신에 대한 강점을 인식한 후에는 흥미와 관심분야에 강점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구체적인 진로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로관여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추론된다[12]. 대학 시기동안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는 미래에 대한 성찰로 귀결되므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진로태도를 보여 진로관여행동 수준 또한 향상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β=.54) 및 진로관여행동(β=.50)에 대한 강점인식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학과에서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사례를 이끌어내어 학생 스스로 강점을 인식하게 하는 상담방법[32]을 활용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도 높아지며, 진로적응성은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9,11,20,32]를 보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는 미래의 진로환경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강점인식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간호면허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수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의 함양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강점인식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근거로 삶의 의미를 찾고, 이에 기반한 목표의 설정과 계획 및 성찰이 포함하는 등[33] 본 연구결과를 기반한 내용으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 결 론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진로적응성은 강점인식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하며, 강점인식과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설명력(R^2)은 47.0%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강점인식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간호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의 진로관련 교육 및 상담에서 개인이 강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인 지도전략 뿐 아니라 진로적응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로 제한되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추후 다양한 지역의 표본 확보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기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질적 연구방법 및 실험연구를 통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뿐 아니라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강점활용 변수를 포함한 연구 뿐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늘어가는 간호대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진로관여행동의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enternet]. OECD Health Statistics 202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 (accessed Dec, 11, 2023)
2. J. H. Kim, H. J. Bae, S. Y. Jung, "Forecasting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2 pp. 1083-1097, (2017).
3. E. A. Kim, "The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Society"* Vol.39, No.4 pp. 499-506, (2022).
4. H. J. Kim, J. H. Kim, "Career cho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2 pp. 127-136, (2022).
5. M. A. Kim, J. Y. Lim, S. Y. Kim, E. J. Kim, J. E. Lee, Y. K. Ko,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3, No,4 pp. 383-391, (2004).
6. Cox DW,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University of Kansas,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2008).
7. Black MD, *"Reason, Intuition, and Engagement: A Trilateral Model of Adaptive care Decision Making",* University of Kansas,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2006).
8. Holland JL,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What We Have Learned and Some new Di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51, No.4 pp. 397-406, (1996).
9. K. E. Yoo, K. H. Lee, "The Influence of Optimism on Occupational Engagement :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Illusion of Contr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2 pp. 65-86, (2015).
10. G. S. Kim, B. H. Kim,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nse of Calling and Career Outl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areer Education Conference*. (2022. 5).
11. W. J. Jang, "Study on the Influence of Growth Mindset of University Students on Occupational Engagement: Testing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1, No.3 pp. 49-56, (2023).
12. Y.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Knowledg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Us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Gyeongi, (2018).
13. Govindji R, Linley PA,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No.2 pp. 143-153, (2007).
14. J. A.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Strength, Self-regulatory 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Han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2014).
15. J. H. Lee,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 of Tourism Related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Career Adaptability",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12, No.3 pp. 249-268, (2016).
16. N. K. Cho, J. H. Kwon, M. Y. Jung,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3 pp.1-27, (2016).
17. H. S. Yoo, "The Effects of Strengths Use, Occupational Engagement, and Career Adaptability on Female Tourism Major Students",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 Vol.16, No.4 pp. 195-211, (2016).
18. J. E. Lee, Y. A. Cho,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Knowledg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9, No.3 pp. 113-132, (2017).
19. S. Y. Kim, S. A. Bae,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12 pp. 429-448, (2014).
20. H. M. Park, N. H. Yoo,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Adaptability between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Occupational Engagement with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Career Adaption Mod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 89-110, (2020).
21.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22. Maggiori, C. Rossier, J. Savickas. ML,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 (CAAS-SF) Construction andV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25, No.2 pp. 312-325, (2017).
23. M. S. Kim, E. Y. Ko, "Career Adapt-Abilities Scale Short-Form Validation Study",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6, No.4 pp. 261-281, (2020).
24. M. N. J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2011).
25.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26.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 290-312, (1982).
27. K. H. Kim,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3 pp. 363-370, (2022).
28. S. Y. Roh,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39, No.4 pp. 479-487, (2022).
29. Y. M. Kim,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 467-480, (2017).
30. H. S. Park,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on Career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and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6, No.4 pp. 420-428, (2021).
31.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4 pp. 21-36, (2017).
32. J. W. Lee, K. H. Lee,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on Undergraduate Student's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pp. 205-228, (2017).
33. Y. M. Son, "The Effect of Meaning Making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 191-212, (2016).